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특자도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도민 염원 확산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현재까지 40만5908명 참여
내달 초 서명부 국회 전달
도, 특자도 출범 시군 회의서
명칭 변경 조례 개정 등 논의



전북도가 지난 13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와 관련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연 가운데,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과 시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당을 열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와 관련해 시군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달 18일부터 시작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이날 12일 현재 40만5908명이 참여했다.

도는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시군, 유관기관 자생 단체를 통한 의지를 모으기로 다짐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작년 12월 전북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22개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안을 지난 8월 30일 입법 발의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전북민이 가진 장점과 강점을 특화시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북민의 특례를 담은 법안으로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있어, 내년 1월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로 알리고,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서명부 일체를 11월 초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입법활동 추진 상황 공유 및 내년 1월 출범에 맞춰 시군에서 정비해야 할 행정표지판,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정비, 명칭 변경 조례 일괄 개정 등에 대한 논의와 합

계 100만인 서명운동의 추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그동안 시군에서 특례 발굴과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애써준 노력을 격려하고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전북의 특별함이 더욱 특별 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QR코드(www.jonbuk.g.kr)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5일 개교 76주년을 맞는 전북대학교가 13일 오후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개교기념식을 가진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본부 보직자, 직원, 학생들, 미래인재상과 자랑스러운 동문상 및 우수 도민상 수상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학-지역 상생 향해 혁신의 길로”

전북대, 개교 76주년 기념식... 미래인재상 등 시상식도
양오봉 총장 “글로벌30,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

지난 15일 개교 76주년을 맞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3일 오후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개교기념식을 갖고 대학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교수 직원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 기근속자 표창을 포함한 대학발전 기여한 교직원들을 시상하는 미래인재상 과 우수부서, 우수학과, 자랑스러운 동문상 및 우수 도민상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이에 따르면 이날 미래인재상 교원 부문 대상에 정길도 교수(공과대학 전자공학부)가 선정된 것을 비롯해 직원 부문에는 기획조정과

수상했다. 또한 우수학과 대상에는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가, 성과관리 우수부서에는 취업진로지원과, 재정운영 우수부서에는 입학처가 각각 수상했다.

또 대학발전 기여한 동문 및 지역민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동문상과 우수 도민상에는 비나텍 성도경 회장과 숲소리 양혜준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오봉 총장은 개교 76주년 기념 식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파고는 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에 파급한 혁신과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대학이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유지해 새로운 도약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도 현

재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제출한 글로벌대학 30 사업 분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에서 우리는 지역과 지역대학을 살리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교육과 지역·산학협력, 글로벌 히브로 도약하기 위한 10가지 혁신 과제를 수립했다”며 “이런 혁신의 과정이 빠를수록 고통의 과정이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대학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총장은 “찰스 다윈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종이었고,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변화만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며 “우리 모두 어깨 걸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향해 혁신의 길로 나가자”고 역설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이 지난 3월 29일 자연유산우수집체지원으로 선정돼 지질분야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 끝에 지난 12일 국가지질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은 부안군 위도면 산71에 위치했으며, 강한 지각변동 이동 결과로 형성된 횡외습곡(橫臥褶曲)이다. 횡외습곡은 퇴적층이 미는 힘에 의해 물결과 같은 굴곡의 형태로 거의 수평으로 누운 습곡을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천연기념물 되다

말한다. 거대한 반원형의 형태로 부안 위도에서는 오랫동안 ‘큰 달(大月)’로 불렸다.

일반적인 습곡과는 달리 완전히 굽지 않는 지층들이 카펫처럼 밀려 거대한 습곡구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기 이전에 형성된 우리나라

독특한 형태의 큰 반원형으로 이뤄져 지질학적 가치 커
도내 천연기념물 총 34곳... 지질분야로서는 다섯번째

습곡과는 달리 백악기 이후에 형성되는 등 시나 과정 형태 등이 다른 습곡과는 다른 차별성과 독특한 지질

학적 특징이 인정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이로서 총 34개소의 천연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전경.

기념물이 지정됐고 지질분야는 5번째, 습곡으로는 부안 체석강·적벽강 일

원, 군산 말도 습곡구조와 더불어 총 37개소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됐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우수한 전북의 자연유산이 적극적으로 발굴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부안군과 협력해 천연기념물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안을 마련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 활용하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내 고향 장수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장수군을 사랑하는 마음, 기부금으로 전하세요!

답례품

장수사랑상품권, 장수 한우, 꺼먹돼지 세트, 장수 사과, 오미자, 오미자주 등 20여개 품목

문의 | 장수군 행정지원과 ☎ 063-350-2009, 2140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액 연간 500만원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포함)

기부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2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까지